

복합외상 경험자들의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의 관계 -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

김 인 경

홍 혜 영[†]

명지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만 18세 이상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대구, 경북, 경남, 광주, 부산, 전남 지역의 남녀 성인 중 복합 PTSD 진단 준거에 부합하는 13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경험하는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및 그 하위요인들과 용서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자기비난을 제외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은 용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경험하는 외상관련 정서는 용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인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이 조절효과를 보였다. 즉, 외상관련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을 사용할수록 용서가 촉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상관련 정서의 하위요인인 배신감, 공포, 소외감과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수용이 조절효과를 보였다. 즉, 배신감, 공포, 소외감을 경험하는 경우, 수용을 사용할수록 용서가 촉진된다고 할 수 있다. 분노와 용서의 관계에서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인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 그리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자기비난이 조절효과를 보였다. 즉, 분노를 경험하는 경우,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 자기비난을 사용할수록 용서가 촉진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치심과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인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수용이 조절효과를 보였다. 즉, 수치심을 경험하는 경우,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수용을 사용할수록 용서가 촉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경험하는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와의 관계에서 있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밝혀, 높은 수준의 외상관련 정서로 용서에 어려움을 느끼며, 이 때문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의 치료적 개입에 있어 외상관련 정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복합 PTSD, 외상관련 정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용서

[†] 교신저자: 홍혜영, 명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E-mail: hyhong@mju.ac.kr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든 작든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그 중 19~21%는 정상적인 스트레스 범주를 넘어서는 매우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다(Breslau, Davis & Andreski, 1995). 그리고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며, 심각한 경우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 정도로 기능손상을 보인다. 이러한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PTSD)이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이하 DSM-IV)에 의하면 PTSD는 첫째, 개인이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타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경우와 둘째, 그로 인해 강렬한 공포, 두려움, 무기력 등의 감정을 경험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적인 기능 수준이 현저히 낮아질 경우 진단된다.

이들 중 대인관계에서 장기간 반복되는 외상에 노출된 아동이나 성인은 PTSD 진단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심층적이고도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외상 경험자들의 심리적 증상을 포괄하기 위하여 복합외상 장애(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복합 PTSD) 혹은 “달리 분류 되지 않은 극단적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DESNOs)”라는 하나의 독립적인 개념으로 구분 지었다(안현의, 2007).

이처럼 ‘장기간 반복된 외상’인 복합외상의 사례로는 아동기 학대 피해, 가정폭력 피해, 포로경험, 난민경험, 성매매나 인신매매 피해, 탈북자의 외상경험, 군복무 부적응자, 학교폭력 피해 등을 들 수 있다(안현의, 2007).

이들이 보이는 복합 PTSD의 특징은 첫째, 정서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 주의력과 의식의 변화, 신체화 장애를 포함한 심리사회적 증상과 둘째, 자기 인식의 변화, 의미체계의 변화, 대인관계의 어려움 및 가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인다(Herman, 1992). 또한 이들은 외상사건 후 흔히 공포, 두려움, 무력감을 경험하며, 이 외에도 분노, 배신감, 소외감, 수치심, 슬픔(애도), 죄책감 등의 다양한 정서를 호소하고 있다(안현의, 박철옥, 주혜선, 2012). 더불어 Andrews 등(2000)의 연구를 통해 외상사건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며, 정서가 증상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상사건과 그에 따른 증상은 DSM-IV에 명시되어 있는 확인된 몇몇 사건과 정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어떤 사건에 대한 각 개인의 주관적인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호소하는 다양한 정서들 중 분노, 수치심, 공포, 소외감, 배신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 중 첫 번째로 분노를 살펴보면, 이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기본적 정서반응으로(Gaylin, 1984) 그 강도, 빈도 및 지속정도가 지나치거나 타인 및 자신을 향하여 파괴적 공격성을 띠고 부적절하게 표현될 때 일상생활의 적응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Deffenbacher, McNamara, Stark & Sabadell, 1990). 분노와 복합 PTSD 증상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Dyer, Dorahy, Hamilton, Corry, Shannon, MacSherry, McRobert, Elder & McElhill, 2009)에서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PTSD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공격성과 분노, 자해를 보고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 분노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보고하는 정서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분노 외에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서로 수치심을 들 수 있다. Tangney 등(1992)에 따르면 수치심은 외상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나는 가치 있고 유능한 존재'라는 도식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자기 자신에게 향한 부정적인 정서로, 자기 자신이 사람으로서 결함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심은 복합외상 경험자들에게 나타나는 무가치감, 자존감 부족, 자기 비난, 자기증오의 부정적 자기감과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Allen, 2005), 이는 애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대의 원인과 책임을 가해자인 애착 대상자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려 발생하는 결과라고 보기도 하였다(Harter, 1999). 이러한 결과, 수치심은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보고하는 자기인식의 변화와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 중 세 번째로 공포를 살펴보면, 이는 DSM-IV의 PTSD 진단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적인 외상관련 정서로써 '사람에 의한 외상'의 복합외상 경험자의 경우, 가해자와 비슷한 사람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어도 그 사건 당시를 재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 공포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보고하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 중 네 번째로 소외감을 살펴보면, 이는 일반

적으로 '본래 지녔던 어떤 것이 상실되거나 낮설게 되는 상태나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민경환, 1993). 전철은 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장기간 반복된 학대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의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사회적 지지체계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 소외감은 자신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수용되거나 포용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며 이것이 복합외상 경험자들의 자기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자기인식의 변화는 절망감과 무망감을 비롯하여 삶과 세상에 대한 의미 체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DePrince, Chu & Pineda, 2011).

마지막으로 DePrince 등(2011)은 배신감이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보고하는 해리 증상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를 말한 뒤 복합외상 경험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의해서 배신감이 생길 수도 있으며, 그 결과 다른 사람을 믿기 어려워 가까운 관계를 피하거나 적대감과 분노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 배신감은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보고하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들이 보이는 정서문제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적 외상이 심각하더라도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Freedman & Enright, 1996).

라영선 등(2010)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복합 PTSD의 관계에 있어 용서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 용서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학대 경험자의 복합 PTSD 증상이 완화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대인관계적 외

상을 경험한 대학생들에 관한 연구(박효정, 2007)에서 글쓰기 용서치료 후 공감적 이해, 정적 정서 및 고차원적 사고가 촉진되고 부정적 정서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박철옥 (2007)의 연구에서는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용서하기 힘들어하고, 부정적이고 원치 않는 감정과 생각이 수반되는 경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용서하기 어려울수록 재경험, 회피/마비, 과각성 증상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와 용서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Sansone, Kelley & Forbis, 2013)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외상과 학대에 자주 노출되었으며, 이들은 낮은 수준의 용서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Langman 등(2013)의 연구에서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 역시 과거에 외상에 노출된 적이 있었으며, 이들도 낮은 수준의 용서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외상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한 방편으로 최근 용서가 주목 받고 있다 (Denton & Martin, 1998). 용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언급되어 온 개념이라 용서 자체가 새로운 개념, 새로운 구조는 아니지만 용서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1980년 후반, 최근의 일이다(McCullough, Pargament & Thorensen, 2000). 현재까지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용서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nright 등(1991)은 용서란 ‘피해를 입은 사람의 개인적인 내적 변화로,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판단을 극복하는 과정이며, 상대를 자비와 동정심,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이라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오영희 (2008)는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행위로 보았으며, 상처를 받은 후에 생겨나는 부정적 반응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 긍정적 반응이 생겨나는 것으로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 하였다.

반면, Tangney 등(1999)은 용서가 피해를 받은 이후의 인지 정서적 변화라고 정의하였으며, 용서의 대상을 자기 자신과 타인으로 보았다. 또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극복하고, 부정적 반응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렇듯 용서의 개념을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용서가 개인 내적인 과정이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수용하고,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부정적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 수준에서 중립적 반응 수준을 넘어, 긍정적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 수준으로 변화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오영희, 2008; Enright et al., 1991).

이러한 용서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서문제에 대한 용서의 치료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근친상간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용서개입 치료를 실시한 결과, 우울과 불안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고 용서와 미래에 대한 희망은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Freedman & Enright, 1996), Maltby 등(2001)의 연구에서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성별에 상관없이 불안, 신경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cCullough 등(2001)은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경증과 불안 수준이 높고, 분노와 적개심으로 관계를 손상시키기 쉽다고 하였다(Thompson, Synder, Hoffman, Micheal, Rasmussen, Billings, Heinze, Neufeld,

Shorey, Roberts & Roberts, 2005).

또한 배우자의 학대 결정으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남성에게 대한 연구(Coyle & Enright, 1997)에서 용서치료 개입 후 분노 수준이 감소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더불어 정치적 폭력으로 인해 희생된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용서치료를 실시한 결과 분노가 유의하게 감소된 것이 보고되었으며(Luskin, 2001), 김광수(2002)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입었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용서가 분노 수준을 감소시키고, 자존감은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John(1985)은 용서가 필요한 상황, 행동은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죄책감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았고, 용서를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심리적 방어를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효정(2007)의 연구에서는 대인관련 외상을 경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용서치료를 실시한 결과, 수치심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용서가 개인의 심리적 건강 및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정서문제와는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용서가 복합외상 경험자들의 외상관련 정서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용서가 신체건강과 관련해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용서는 교감신경의 각성 수준을 낮추고, 생체 적응성을 회복하게 하여 신체건강을 유지,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박종효, 2003).

마지막으로 용서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있어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박종효(2003)는 용서를 성공적으로 경험

한 사람일수록 타인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책임 있는 관계라고 느끼며, 갈등이나 상처로 파괴된 대인관계를 회복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용서는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상처를 입은 개인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용서해야 할 대상에 따라 용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렇듯 용서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용서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용서를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가해 자체의 특징과 같은 상황적인 요인, 가해자와 외상 경험자 사이의 관계적인 요인, 공감, 그리고 정서조절, 친화성이나 낙관성, 자아존중감, 유머, 정서적 안정성, 애착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이연수, 2011; 정성진, 2011). 이러한 요인들 중 정서조절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불쾌한 정서를 경험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정신 뿐 아니라 신체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며, 정서조절의 실패가 만성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정서조절 장애로 발전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Cole, Michel, & Teti, 1994).

본 연구에 사용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질문지를 개발한 Garnefski 등(2001)은 정서조절을 행동적, 인지적 측면으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외적이고 행동적인 정서조절 측면에서 보다 내적이고 인지적인 정서조절 측면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성인의 정서조절전략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행동적 접근보다 인지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로 반추를 들 수 있다.

반추와 용서의 관계를 연구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살펴보면, Worthington 등(1999)은 자신에게 일어난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 더 많이 반추하는 것이 용서와는 부적 상관을, 복수와와는 정적 상관임을 보고 하였고, 반추가 용서와 복수 및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지영, 유제민, 현명호, 2008), 다른 연구들에서도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반추 정도가 높을수록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McCullough et al., 2007; Paleari, Regalia & Fincham, 2005). 더불어 인지적 사고과정과 용서의 관계에 있어 반추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에서는(Pronk, Karremans, Overbeek, Vermulst & Wigboldus, 2010), 가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학생들 중 낮은 수준의 반추를 나타낸 경우, 반추의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용서와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반추 외에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용서에 대한 연구(이아름, 2009)에서는 타인비난과 파국화가 용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부정적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을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타인을 비난 할수록,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떠올리며 최악의 경험이라고 생각할수록, 낮은 용서 수준을 보이고 높은 복수 동기를 가질 경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긍정적 정서조절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연구들에서, 정서조절과 정서회

복능력이 용서 경향성을 예측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Hodgson & Wertheim, 2007; Rizkalla, Wertheim & Hodgson, 2008). Rhoades 등(2007)은 2001년 9월 11일 테러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용서 경향성을 보이거나 용서를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용서 경향성을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인지 재구조화 혹은 긍정적 사고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용서의 과정을 연구한 정성진(2011)의 연구에서 용서 과정의 각 국면에서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정서조절 전략의 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기로 결심함으로써 자유로움을 경험을 하게 되는 ‘용서기’의 정서조절전략으로 ‘인지적 수용’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부정적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긍정적 초점변경’과 유사하게 불쾌한 일보다 즐거운 일을 상상하는 것이 용서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계획 다시 생각하기’와 유사하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전략 역시 용서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용서와의 관련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용서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정서조절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원치 않는 충동적 행동을 조절 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문제해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Arriaga & Rusbult, 1998). 그러므로 정서조절이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강렬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그러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낮은 수준의 용서를 보이며, 그에 따른 부가적인 증상(정서문제, 신체건강, 대인관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상사건 후에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외상관련 정서’라 명하고 외상관련 정서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외상관련 정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용서와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복합외상 경험자들의 용서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대구, 경북, 경남, 광주, 부산, 전남 지역의 만 18세 이상 남녀 성인 1,825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방법을 통하여 설문지와 소정의 답례품을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1,432부였다. 그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제외한 후, 복합 PTSD 진단 준거(총 7개의 영역 중 4개의 영역에서 증상이 있다고 확인되면 진단)에 부합하는 13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시간은 총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측정도구

외상 체크리스트

외상 체크리스트는 외상경험의 개인력을 확인하고자 주혜선, 안현의(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외상사건(예: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피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판 외상정서평가 척도

DePrince 등(2010)이 개발한 외상정서평가척도(Trauma Appraisal Questionnaire, 이하 TAQ)를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TAQ는 외상사건 경험 후 현재 경험하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평가를 확인하기 위한 척도로, 장미수(2011)가 변안한 것이다.

TAQ는 배신감, 자기비난, 공포, 소외감, 분노, 수치심의 여섯 요인으로 총 5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한 장미수(2011)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가 .9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TAQ의 하위요인인 자기비난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자기비난의 개념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 TAQ에서 자기비난 문항은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5로 나타났다.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

Ouimette, Saxe와 van der Kolk(1996)의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면접지(Complex PTSD Interview: CPTSD-I)의 인터뷰 방식을 양계령(2008)이 질문지 형식으로 수정한 것이다. CPTSD-I는 총 37문항으로 복합 PTSD의 주요 7가지 증상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각 문항에 대해 횡수와 강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횡수와 강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는데, 각 문항에서 횡수가 1 이상이고 강도가 2 이상이면 해

당 문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둘 이상의 하위 영역을 가진 영역은 하위 영역 중 하나에만 해당 되어도 그 영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정한다. 총 7개의 영역 중 4개의 영역에서 증상이 있다고 확인되면 복합 PTSD 진단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았으며, 점수는 횡수×강도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가정 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양계령(2008)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질문지

Garnefski 등(2001)이 개발하고 김소희(2004)가 변안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이다. 하위요인은 9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수용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소희(2004)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8로 나타났다.

한국인 용서척도

오영희(2006)의 한국인의 용서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개발된 상황 특수적 용서 척도이다. 각 문항의 응답은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용서 점수는 부정적 문항을 역산한 후, 24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를 많이 한 것이다. 오영희(2008)가 보고 한 내적합치도는 .95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처리 및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시하였다. 다중 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VIF를 살펴보고, 각 변수들을 평균 중심화 한 후 분석하였다. 첫째,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외상관련 정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용서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의 관계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외상관련 정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경우, 조절변수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외상관련 정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저 집단/고 집단으로 분류한 후, 용서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총 135명 중에서 남성은 29명(21.5%), 여성은 106명(78.5%)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으며 20대가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들이 경험한 외상사건의 발생빈도(중복 응답)를 살펴보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외

상사건 경험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건의 발생빈도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폭력, 자연재해, 성폭력 순이었다.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외상관련 정서는 용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37, p < .001$)을 보였다.

외상관련 정서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및 하위요인들과 유의미하지 않았다. 외상관련 정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r = .46, p < .001$)과 그 하위요인인 반추($r = .34, p < .001$), 타인비난($r = .43, p < .001$), 파국화($r = .48, p < .001$)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자기비난($r = -.05$)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외상관련 정서 하위요인들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배신감이 유일하게 수용($r = .17, p < .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그 외의 다른 외상관련 정서들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외상관련 정서 하위요인들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배신감은 반추($r = .23, p < .01$), 타인비난($r = .34, p < .001$), 파국화($r = .31, p < .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공포 역시 반추($r = .34, p < .001$), 타인비난($r = .40, p < .001$), 파국화($r = .46, p < .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소외감은 반추($r = .32, p < .001$), 타인비난($r = .28, p < .01$), 파국화($r = .39, p < .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분노 역시 반추($r = .22, p < .01$), 타인비난($r = .48, p < .001$), 파국화($r = .47, p < .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수치심도 반추($r = .24, p < .01$), 타인비난($r = .28, p < .01$), 파국화($r = .35, p < .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용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및 그 하위요인들은 용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용서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37, p < .001$)을 보였으며, 그 하위요인인 반추($r = -.24, p < .01$), 타인비난($r = -.21, p < .05$), 파국화($r = -.39, p < .001$)와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자기비난($r = .03$)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독립변수로 1단계에는 외상관련 정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외상관련 정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변수를 차례대로 투입함으로써 주효과를 통제 한 후에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았다.

표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외상 관련 정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계획 다시 생각	긍정적 초점 연결	긍정적 재평가	수용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반추	자기 비난	타인 비난	파국화	유서
외상관련 정서	1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01	1										
조심확대	-.06	.78***	1									
계획 다시 생각하기	.10	.78***	.46***	1								
긍정적 초점연결	-.06	.65***	.45***	.30***	1							
긍정적 재평가	.03	.67***	.64***	.45***	.37***	1						
수용	.08	.75***	.48***	.34***	.37***	.44***	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46***	.43***	.32***	.14	.32***	.44***	.81***	1				
반추	.34***	.56***	.34***	.07	.28***	.40***	.46***	.38***	1			
자기비난	-.05	.34***	.43***	.14	.52***	.59***	.46***	.37***	-.34***	1		
타인비난	.43***	-.03	.03	.08	-.09	-.12	.47***	.33***	.05	.43***	1	
파국화	.48***	.16	.07	.05	.06	.20	.77***	.53***	.05	.43***	.31***	1
유서	-.37***	-.03	.04	.08	-.01	-.13	-.31***	-.34***	.03	-.21*	-.39***	.31***
평균	3.36	3.10	2.99	2.85	3.10	3.24	3.19	3.46	3.02	3.01	3.25	2.38
표준편차	.68	.64	.75	.90	.94	.74	.49	.74	.88	.89	.74	.60

* $p < .05$, ** $p < .01$, *** $p < .001$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외상관련 정서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1, p < .05$).

외상관련 정서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외상관련 정서 저 집단과 외상관련 정서 고 집단, 그리고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저 집단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고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을 보면, 높은 수준의 외상관련 정서를 보고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용서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상관련 정서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인 조망확대($\beta = .08$), 긍정적 초점변경($\beta = .13$), 긍정적 재평가($\beta = .12$)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계획 다시 생각하기($\beta = .16, p < .05$), 수용($\beta = .26, p < .01$)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관련 정서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계획 다시 생각하기의 상호작용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외상관련 정서 저 집단과 외상관련 정서 고 집단, 그리고 계획 다시 생각하기 저 집단과 계획 다시 생각하기 고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를 보면, 높은 수준의 외상관련

정서를 보고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계획 다시 생각하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용서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외상관련 정서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수용의 상호작용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외상관련 정서 저 집단과 외상관련 정서 고 집단, 그리고 수용 저 집단과 수용 고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을 보면, 높은 수준의 외상관련 정서를 보고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수용을 많이 사용할수록 용서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종합하여 보면, 외상관련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계획 다시 생각하기와 수용을 사용함으로써 용서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외상관련 정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06$).

더불어 외상관련 정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들은 유의미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1단계(β)	2단계(β)
전체	용서	외상관련 정서(A)	-.33***	-.31***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B)	-.02	-.07
		A × B		.21*
		R ²	.14	.17*
		F	11.15***	9.25***
하위 요인	용서	외상관련 정서(A)	-.33***	-.32***
		조망확대(B)	.01	-.00
		A × B		.08
		R ²	.14	.15
		F	11.11***	7.75***
	용서	외상관련 정서(A)	-.32***	-.31***
		계획 다시 생각하기(B)	-.06	-.09
		A × B		.16*
		R ²	.15	.18*
		F	11.86***	9.56***
	용서	외상관련 정서(A)	-.33***	-.32***
		긍정적 초점 변경(B)	.04	.01
		A × B		.13
		R ²	.14	.16
		F	11.45***	8.66***
	용서	외상관련 정서(A)	-.33***	-.32***
		긍정적 재평가(B)	-.00	-.03
		A × B		.12
		R ²	.14	.16
		F	11.08***	8.36***
	용서	외상관련 정서(A)	-.32***	-.27**
		수용(B)	-.08	-.14*
		A × B		.26**
		R ²	.15	.20**
		F	12.15***	11.34***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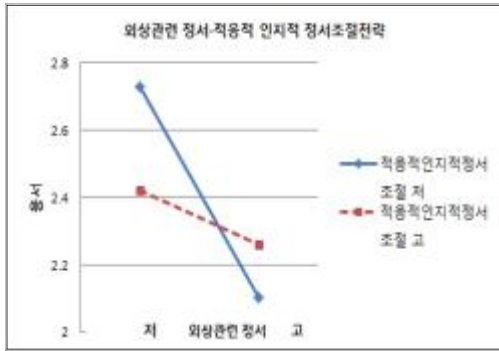


그림 1.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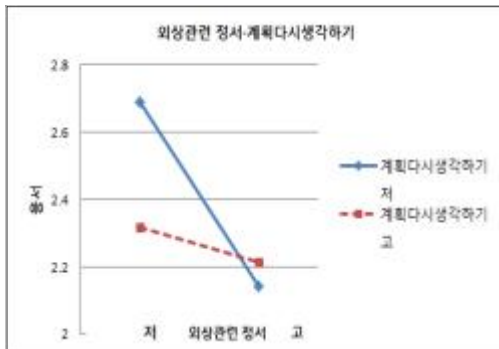


그림 2.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의 관계에서 계획 다시 생각하는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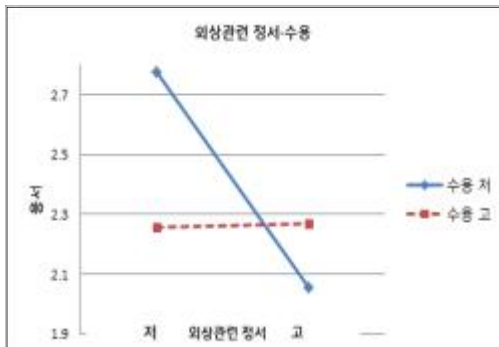


그림 3.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의 관계에서 수용의 조절효과

배신감과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배신감과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배신감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beta = .13$). 더불어 배신감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인 조망확대($\beta = .06$), 계획 다시 생각하기($\beta = .10$), 긍정적 초점변경($\beta = .02$), 긍정적 재평가($\beta = .04$)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수용($\beta = .14$, $p < .05$)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신감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수용의 상호작용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배신감 저 집단과 배신감 고 집단, 그리고 수용 저 집단과 수용 고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림 4를 보면, 높은 수준의 배신감을 보고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수용을 많이 사용할수록 용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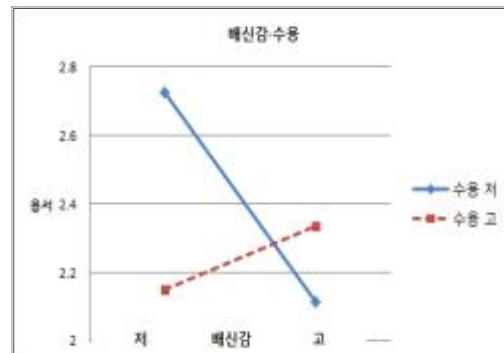


그림 4. 배신감과 용서의 관계에서 수용의 조절효과

표 3. 배신감과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1단계(β)	2단계(β)
전체	용서		배신감(A)	-.19***	-.19**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B)	-.02	-.05
			A × B		.13
			R ²	.09	.11
			F	6.85**	5.43**
하위 요인	용서		배신감(A)	-.20***	-.19**
			조망확대(B)	.03	.01
			A × B		.06
			R ²	.09	.10
			F	6.94**	4.90**
	용서		배신감(A)	-.19**	-.19**
			계획 다시 생각하기(B)	-.06	-.08
			A × B		.10
			R ²	.10	.12
			F	7.59**	6.04**
	용서		배신감(A)	-.19***	-.19**
			긍정적 초점 변경(B)	.04	.03
			A × B		.02
			R ²	.09	.09
			F	7.19**	4.82**
	용서		배신감(A)	-.20***	-.20***
			긍정적 재평가(B)	-.01	-.02
			A × B		.04
			R ²	.09	.09
			F	6.85**	4.81**
	용서		배신감(A)	-.19**	-.17**
			수용(B)	-.07	-.11
			A × B		.14*
			R ²	.10	.12*
			F	7.43**	6.38***

* $p < .05$, ** $p < .01$, *** $p < .001$

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배신감과 용서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배신감과 용서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배신감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03$). 더불어 배신감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신감과 용서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들은 유의미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포와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공포와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그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공포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13$). 더불어 공포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하위요인인 조망확대($\beta = .06$), 계획 다시 생각하기($\beta = .10$), 긍정적 초점변경($\beta = .08$), 긍정적 재평가($\beta = .06$)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수용($\beta = .19, p < .05$)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포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수용의 상호작용이 용서에 미치는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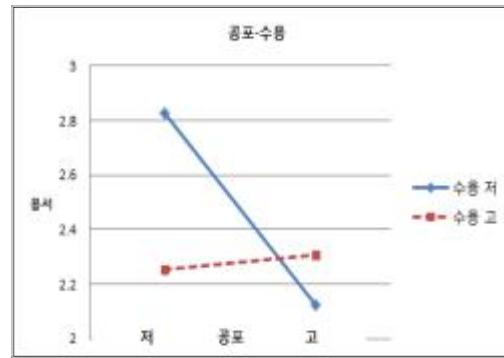


그림 5. 공포와 용서의 관계에서 수용의 조절효과

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공포 저 집단과 공포 고 집단, 그리고 수용 저 집단과 수용 고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그림 5를 보면, 높은 수준의 공포를 보고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수용을 많이 사용할수록 용서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공포와 용서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공포와 용서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공포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06$). 더불어 공포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포와 용서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들은 유의미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공포와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1단계(β)	2단계(β)
전체	용서	공포(A)	-.24***	-.23**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B)	-.02	-.05
		A × B		.13
		R ²	.10	.11
		F	7.40**	5.86**
하위 요인	용서	공포(A)	-.24***	-.24***
		조망확대(B)	.02	.00
		A × B		.06
		R ²	.10	.10
		F	7.43**	5.21**
	용서	공포(A)	-.24***	-.23**
		계획 다시 생각하기(B)	-.07	-.09
		A × B		.10
		R ²	.11	.12
		F	8.18***	6.31***
	용서	공포(A)	-.24***	-.24***
		긍정적 초점 변경(B)	.05	.03
		A × B		.08
		R ²	.10	.11
		F	7.81**	5.71**
	용서	공포(A)	-.24***	-.24***
		긍정적 재평가(B)	-.00	-.02
		A × B		.06
		R ²	.10	.10
		F	7.36**	5.21**
	용서	공포(A)	-.24***	-.21**
		수용(B)	-.08	-.13
		A × B		.19*
		R ²	.11	.15*
		F	8.34***	7.71***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소외감과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1단계(β)	2단계(β)
전체	용서	소외감(A)	-.24***	-.22**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B)	-.03	-.05
		A × B		.14
		R ²	.10	.12
		F	7.88**	6.31**
하위 요인	용서	소외감(A)	-.24***	-.24***
		조망확대(B)	.00	.00
		A × B		.02
		R ²	.10	.10
		F	7.78**	5.18**
	용서	소외감(A)	-.23**	-.23***
		계획 다시 생각하기(B)	-.06	-.07
		A × B		.11
		R ²	.11	.13
		F	8.55***	7.00***
	용서	소외감(A)	-.24***	-.23***
		긍정적 초점 변경(B)	.04	.02
		A × B		.06
		R ²	.10	.11
		F	8.10***	5.70**
	용서	소외감(A)	-.24***	-.23***
		긍정적 재평가(B)	-.01	-.02
		A × B		.05
		R ²	.10	.11
		F	7.80**	5.45**
	용서	소외감(A)	-.23***	-.20**
		수용(B)	-.08	-.09
		A × B		.17*
		R ²	.11	.15*
		F	8.76***	8.14***

* $p < .05$, ** $p < .01$, *** $p < .001$

소외감과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소외감과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소외감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14$). 더불어 소외감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인 조망확대($\beta = .02$), 계획 다시 생각하기($\beta = .11$), 긍정적 초점변경($\beta = .06$), 긍정적 재평가($\beta = .05$)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수용($\beta = .17, p < .05$)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감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수용의 상호작용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소외감 저 집단과 소외감 고 집단, 그리고 수용 저 집단과 수용 고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그림 6에 제시하였다. 그림 6을 보면, 높은 수준의 소외감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수용을 많이 사용할수록 용서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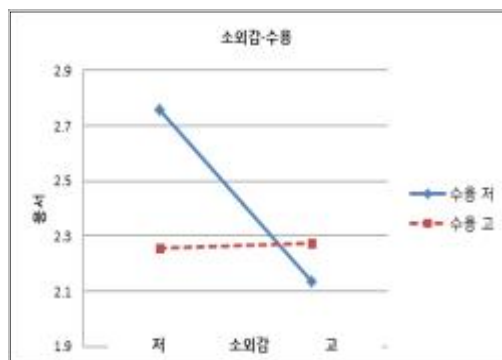


그림 6. 소외감과 용서의 관계에서 수용의 조절효과

소외감과 용서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소외감과 용서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소외감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06$). 더불어 소외감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외감과 용서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들은 유의미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와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분노와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분노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 하였다($\beta = .16, p < .05$).

분노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분노 저 집단과 분노 고 집단, 그리고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저 집단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고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그림 7에 제시하였다.

그림 7을 보면, 높은 수준의 분노를 보고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용서 수준이 높

표 6. 분노와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1단계(β)	2단계(β)
전체	용서	분노(A)	-.27***	-.25***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B)	-.05	-.10
		A × B		.16*
		R ²	.15	.17*
		F	11.91***	9.44***
하위 요인	용서	분노(A)	-.27***	-.27***
		조망확대(B)	.00	.00
		A × B		.01
		R ²	.15	.15
		F	11.62***	7.72***
	용서	분노(A)	-.27***	-.28***
		계획 다시 생각하기(B)	-.09	-.12*
		A × B		.12*
		R ²	.16	.19*
		F	13.27***	10.69***
	용서	분노(A)	-.27***	-.26***
		긍정적 초점 변경(B)	.05	.04
		A × B		.03
		R ²	.15	.15
		F	12.15***	8.18***
	용서	분노(A)	-.27***	-.26***
		긍정적 재평가(B)	-.00	-.02
		A × B		.06
		R ²	.15	.15
		F	11.63***	8.27***
	용서	분노(A)	-.28**	-.27***
		수용(B)	-.14*	-.22**
		A × B		.25***
		R ²	.18*	.25***
		F	14.59***	14.9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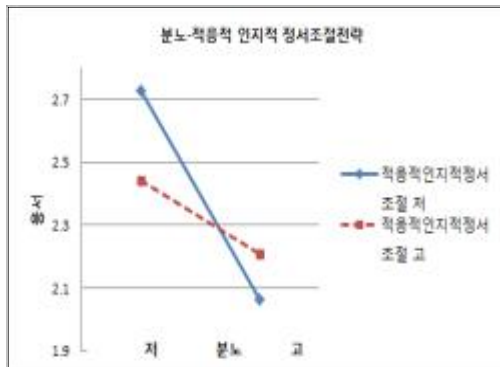


그림 7. 분노와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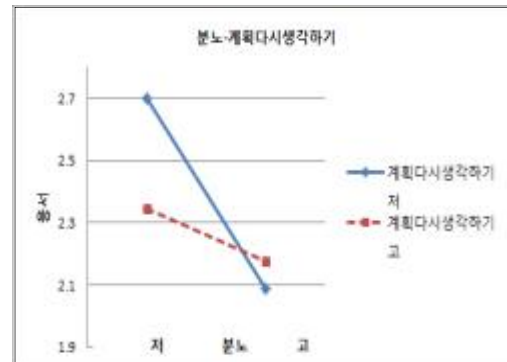


그림 8. 분노와 용서의 관계에서 계획 다시 생각하기의 조절효과

아짐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분노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인 조망확대($\beta = .01$), 긍정적 초점변경($\beta = .03$), 긍정적 재평가($\beta = .06$)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계획 다시 생각하기($\beta = .12, p < .05$), 수용($\beta = .25, p < .05$)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노를 강하게 경험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 중 계획 다시 생각하기와 수용을 사용함으로써 용서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노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계획 다시 생각하기의 상호작용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분노 저 집단과 분노 고 집단, 그리고 계획 다시 생각하기 저 집단과 계획 다시 생각하기 고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그림 8에 제시하였다.

그림 8을 보면, 높은 수준의 분노를 보고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계획 다시 생각하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용서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분노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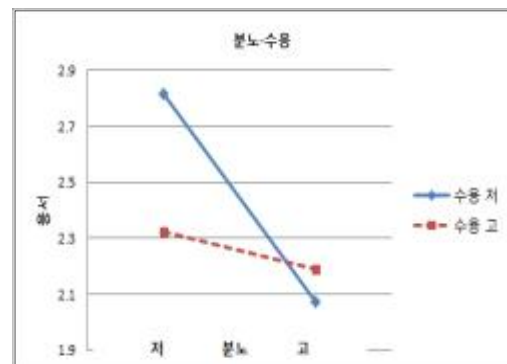


그림 9. 분노와 용서의 관계에서 수용의 조절효과

의 하위요인인 수용의 상호작용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분노 저 집단과 분노 고 집단, 그리고 수용 저 집단과 수용 고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그림 9에 제시하였다.

그림 9를 보면, 높은 수준의 분노를 보고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수용을 많이 사용할수록 용서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종합하여 보면, 분노를 강하게 경험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계획 다시 생각하기와 수용을 사용함으로써 용서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노와 용서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분노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효과
 분노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적응적

표 7. 분노와 용서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1단계(β)	2단계(β)
전체	용서	분노(A)	-.22***	-.22***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B)	-.23*	-.24*
		A × B		.13
		R ²	.18*	.19
		F	14.60***	10.47***
하위 요인	용서	분노(A)	-.24***	-.26***
		반추(B)	-.13*	-.14*
		A × B		.07
		R ²	.17*	.18
		F	14.10***	9.78***
	용서	분노(A)	-.27***	-.25***
		자기비난(B)	-.01	-.05
		A × B		.12*
		R ²	.15	.18*
		F	11.67***	9.60***
	용서	분노(A)	-.26***	-.25***
		타인비난(B)	-.03	-.01
		A × B		-.07
		R ²	.15	.15
		F	11.73***	8.20***
	용서	분노(A)	-.18**	-.18**
		파국화(B)	-.22**	-.21**
		A × B		.06
		R ²	.20**	.21
		F	17.34***	11.94***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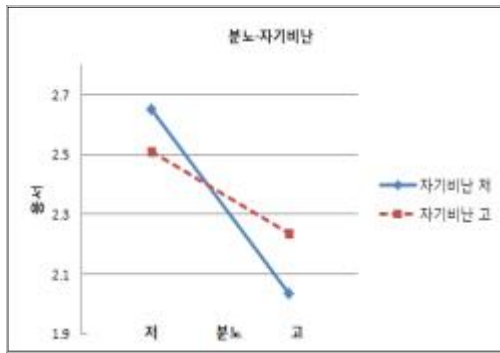


그림 10. 분노와 용서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의 조절 효과

는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13$). 더불어 분노와 반추($\beta = .07$), 타인비난($\beta = -.07$), 파괴화($\beta = .06$)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자기비난($\beta = .12, p < .05$)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자기비난의 상호작용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분노 저 집단과 분노 고 집단, 그리고 자기비난 저 집단과 자기비난 고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그림 10에 제시하였다. 그림 10을 보면, 높은 수준의 분노를 보고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자기비난을 많이 사용할수록 용서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수치심과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수치심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수치심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효과

는 유의미 하였다($\beta = .23, p < .01$).

수치심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수치심 저 집단과 수치심 고 집단, 그리고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저 집단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고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그림 11에 제시하였다.

그림 11을 보면, 높은 수준의 수치심을 보고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용서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수치심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인 조망확대($\beta = .13$), 계획 다시생각하기($\beta = .11$)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긍정적 초점변경($\beta = .16, p < .01$), 긍정적 재평가($\beta = .13, p < .05$), 수용($\beta = .20, p < .01$)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심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초점변경의 상호작용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수치심 저 집단과 수치심 고 집단, 그리고 긍정적 초점변경 저 집단과 긍정적 초점변경 고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그림 12에 제시하였다.

그림 12를 보면, 높은 수준의 수치심을 보고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긍정적 초점변경을 많이 사용할수록 용서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수치심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재평가의 상호작용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수치심 저 집단과 수치심 고 집단, 그리고 긍정적 재평가 저 집단과 긍정적 재평가

표 8. 수치심과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1단계(β)	2단계(β)
전체	용서	수치심(A)	-.18**	-.16**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B)	-.02	-.05
		A × B		.23**
		R ²	.07	.12**
		F	5.02**	6.28**
하위 요인	용서	수치심(A)	-.18**	-.17**
		조망확대(B)	.03	.01
		A × B		.13
		R ²	.07	.09
		F	5.15**	4.61**
	용서	수치심(A)	-.17**	-.16**
		계획 다시 생각하기(B)	-.07	-.07
		A × B		.11
		R ²	.08	.10
		F	5.78**	5.08**
	용서	수치심(A)	-.18**	-.17**
		긍정적 초점 변경(B)	.05	.01
		A × B		.16**
		R ²	.07	.12**
		F	5.43**	6.16**
	용서	수치심(A)	-.18**	-.17**
		긍정적 재평가(B)	.00	-.01
		A × B		.13*
		R ²	.07	.10*
		F	4.99**	4.94**
	용서	수치심(A)	-.18**	-.16**
		수용(B)	-.09	-.13
		A × B		.20**
		R ²	.08	.13**
		F	6.15**	7.0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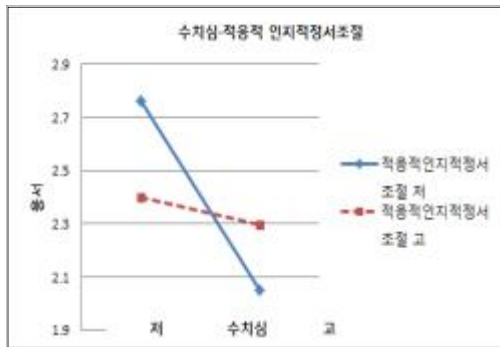


그림 11. 수치심과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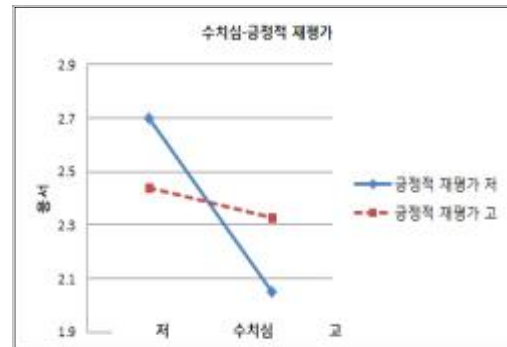


그림 13. 수치심과 용서의 관계에서 긍정적 재평가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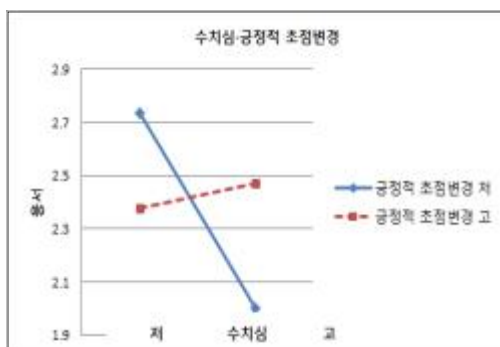


그림 12. 수치심과 용서의 관계에서 긍정적 초점변경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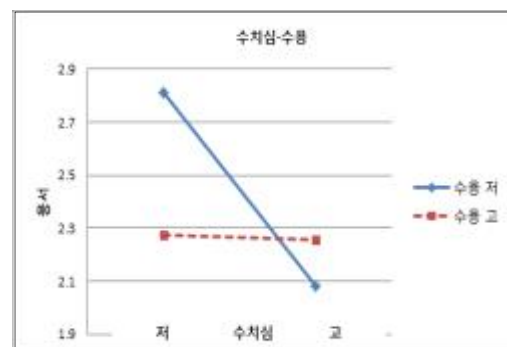


그림 14. 수치심과 용서의 관계에서 수용의 조절효과

가 고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그림 13에 제시하였다. 그림 13을 보면, 높은 수준의 수치심을 보고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긍정적 재평가를 많이 사용할수록 용서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치심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수용의 상호작용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수치심 저 집단과 수치심 고 집단, 그리고 수용 저 집단과 수용 고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그림 14에 제시하였다. 그림 14를 보면, 높은 수준의 수치심을 보고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수용

을 많이 사용할수록 용서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종합하여 보면, 수치심을 강하게 경험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와 수용을 사용함으로써 용서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치심과 용서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수치심과 용서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수치심과 부정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효과($\beta = .10$)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더불어 수치심과 부정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치심과 용서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들은 유의미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외상관련 정서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복합 PTSD 진단 기준(총 7개의 영역 중 4개의 영역에서 증상이 있다고 확인되면 진단)에 부합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 성인 13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측정변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외상 경험자들의 외상관련 정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용서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외상관련 정서는 용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외상관련 정서를 강하게 느낄수록 용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으로, 외상관련 정서

와 용서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광수, 2002; 박효정, 2007; Coyle & Enright, 1997; Maltby et al., 2001). 즉, 본 연구에서 측정한 외상관련 정서인 배신감, 분노, 소외감, 수치심은 DSM-IV의 PTSD 진단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정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정서들이 복합외상 경험자들의 용서를 어렵게 함으로써 증상 악화 또는 유지(Orcutt et. al., 2005)에 영향을 주므로 외상 사건에 대한 각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외상관련 정서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들과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부정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인 타인비난, 파국화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자기비난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들 모두는 용서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부정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들인 반추, 타인비난, 파국화와 용서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자기비난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이 입은 피해나 불쾌한 경험에 대해 타인을 비난하고 책임을 돌리거나, 자신이 겪은 부정적인 사건을 몹시 끔찍하고 최악이었던 것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은 낮은 수준의 용서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반추, 타인비난과 파국화가 용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아름, 2009).

둘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정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분류하여 외상관련 정서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들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결과에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
점을 살펴보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적절
히 사용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은 정서의 강
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용서의 수준이 비
교적 큰 차이가 없으며 안정적인 반면,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은 정서의 강도에 따라 용
서의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며 불안정적인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Herman(1992)이 보고한
복합외상 경험자의 특징 중 정서 및 충동조절
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들이 보이는 이러한 특징은 반복적 외상으로
인해 적절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습득하
고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 발달이론 외상 전문가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Briere, 2002; Pynoos,
Steinberg, Ornitz & Goenjian, 1997).

각각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외상관련 정
서가 용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이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의 관계에서 조
절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이 외상사
건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켜 현실적
인 문제를 극복하고 적응에 기여함으로써 정
서조절과 용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정서조절과 정서회복 능력이 더 큰 용
서 경향성을 예측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
이다(Rizkalla, Wertheim & Hodgson, 2008). 그러
나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의 관계에서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및 하위요인들은 유
의미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외상관련 정서의 하위요인들을 하나씩 살펴
보면, 배신감과 용서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수용이 조절변
수 역할을 하였다. 즉, 배신감을 강하게 경험
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
을 받아들이고 인정할수록 용서가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신감과 용서의 관
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및 하
위요인들은 유의미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배신감을 강하게 경험하
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수용을 사용함으로써
정서조절이 가능해지고, 용서가 촉진되며, 더
불어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보고하는 배신감으
로 인한 해리 증상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된다.

공포와 용서의 관계에서도 역시 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수용이 유의미한 조절
변수의 역할을 하였다. 즉, 공포를 강하게 경
험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수록 용서가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포와 용서의 관
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및 하위
요인들은 역시 유의미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공포를 강하게 경
험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수용을 사용함으
로써 정서조절이 가능해지고, 용서가 촉진되
며, 더불어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보고하는 공
포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가해자에 대
한 인식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 예측된다.

소외감과 용서의 관계를 보면, 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 중 수용이 유의미한 조절변
수의 역할을 하였다. 즉, 소외감을 강하게 경
험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수록 용서가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외감과 용서의 관
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및 하

위요인들은 역시 유의미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소외감을 강하게 경험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수용을 사용함으로써 정서조절이 가능해지고, 용서가 촉진되며, 더불어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보고하는 소외감으로 인한 자기인식의 변화, 의미체계의 변화, 대인관계의 어려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된다.

이상의 관계들을 살펴보면, 배신감, 공포, 소외감과 용서의 관계에서 수용이 중요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함을 볼 수 있다. Gratz 등(2004)에 따르면, 자신의 정서를 자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윤호균(2005)의 연구에서도 수용을 통해 모든 경험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로 여기게 되며, 행동이 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외상사건으로 인해 배신감, 공포, 소외감을 경험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그러한 외상경험과 정서경험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용서가 촉진되며, 보다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높은 수준의 배신감, 공포, 소외감으로 용서에 어려움을 느끼며, 이 때문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의 치료적 개입에 있어, 내담자가 강하게 경험하는 배신감, 공포, 소외감과 그에 따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파악한 후, 외상경험과 그에 따른 정서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보다 적응적으로 대처하고,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에 개방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분노와 용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그 하위요인인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서는 자기비난이 유의미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분노를 강하게 경험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그 하위요인인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서는 자기비난을 사용함으로써 정서조절이 가능해지고, 용서가 촉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보고하는 분노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자기인식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된다.

그러므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높은 수준의 분노로 용서에 어려움을 느끼며, 이 때문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의 치료적 개입에 있어, 내담자가 강하게 경험하는 분노와 그에 따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파악한 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외상 경험과 그에 따른 정서경험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경험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더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기비난을 할수록 용서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Harter(1999)에 따르면, 어린 시절 심각한 성적,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학대를 반복적으로 당한 복합외상 경험자들은 애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대의 원인과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자신에게 돌리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복합외상 경험자의 특성상,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 분노를 억제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eligman 등(1979)

은 분노를 억압하는 것을 학습한 사람은 자신이 더 이상, 분노를 유발시키는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믿음이, 분노를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돌린다고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자기비난을 활성화시킨다고 예측할 수 있다. 더불어, Dunkley 등(2006)의 연구에서 자기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회피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분노를 강하게 경험할 때, 자기비난을 사용함으로써 용서가 촉진되는 것은 회피적 문제해결 방식으로써의 용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긍정적 의미의 용서라기보다 부정적 의미의 용서, 거짓용서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치심과 용서와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수용이 유의미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및 하위요인들은 유의미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수치심을 강하게 경험하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수용을 사용함으로써 정서조절이 가능해지고, 용서가 촉진되며, 더불어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보고하는 수치심으로 인한 자기인식의 변화와 대인관계의 어려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된다.

수치심과 용서의 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긍정적 초점변경과 긍정적 재평가를 사용할수록 용서가 촉진되는 것이다. Tangney 등(1992)에 따르면, 수치심은 외상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나는 가치 있고 유능한 존재’라는 도식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자신

을 향한 부정적인 정서로, 자신이 사람으로서 결함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러한 수치심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첫째, 우리의 도덕성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서로써의 수치심으로, 일탈행위를 억제하고 이타행동을 증가시킴으로써 보다 적응적인 방식으로 타인과의 관계가 가능하게 하며(김기범, 김양하, 2004), 둘째,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 역기능적 정서로써의 수치심으로, 우울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 병리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정형수, 2003).

긍정적 초점변경은 실제로 일어났던 고통을 주는 사건을 생각하는 대신에 즐겁고 유쾌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즐거운 일을 생각하거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떠올리는 걸 말한다. Gamefski(2000)는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적응적 대처를 방해하고 부정적 회피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복합외상 경험자들의 외상경험 특성상 반복적,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져 온 외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이 사용하는 주된 전략은 긍정적 초점변경에서 더 나아가 ‘부적응적인 회피 대처’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긍정적 초점변경과 관련된 수치심은 보다 역기능적인 정서로써의 수치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가 매우 고통스러운 정서이므로 이 ‘부적응적인 회피’를 사용하여 수치심의 의식화를 방해함으로써 용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겠다. 이러한 용서 역시 진정한, 긍정적 의미의 용서라기보

다 부정적 의미의 용서, 거짓용서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긍정적 재평가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자신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자 하며, 그 일로 인해 자신이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재평가와 관련된 수치심은 도덕성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서로서의 수치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긍정적 재평가를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나쁜 것만은 아니며 그것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더 큰 사람이 되었다고 인식하게 됨으로써 용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높은 수준의 수치심으로 용서에 어려움을 느끼며, 이 때문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의 치료적 개입에 있어 내담자가 강하게 경험하는 수치심과 그에 따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파악한 후, 외상 경험과 그에 따른 정서경험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찾도록 재평가 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외상경험과 그에 따른 정서경험을 비판단적으로 관찰해보고 알아차림으로써 내적 가치를 발견하고 개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외상과 관련된 정서로 주로 다루어진 공포, 두려움, 무력감 이외에 배신감, 소외감, 분노, 수치심을 살펴봄으로써 외상관련 정서에 대한 연구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앞으로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의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용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외상관련 정서와 용서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상담과 치료에 중요한 임상적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외상관련 정서를 보고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외상관련 정서의 수준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고려하여 치료적 개입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긍정심리학에 대한 조망을 확장할 수 있다. 최근, 긍정심리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경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그 이점을 간과하고 있으며(Wong, 2011), 긍정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 분노를 강하게 경험하는 복합외상 경험자가 자기비난을 사용할수록 용서가 촉진되고, 수치심을 강하게 경험하는 복합외상 경험자가 긍정적 초점변경을 사용할수록 용서가 촉진되는 거짓용서의 결과가 나타났다. 손운산(2009)은 이런 용서의 과정은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시키고 긍정적 감정을 만들어 내는 기술에 지나지 않게 되며, 가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만 함으로써 부당한 행위자체를 묵과 혹은 묵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복합외상 경험자가 용서의 과정을 통해 가해자를 용서했다고 해도 자신은 여전히 자신의 치료되지 않은 상처로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합외상 경험자의 외상경험과 그에 따른 정서경험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통합의 관점이 긍

정심리학에 대한 조망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검사 측정방식으로 인해, 개인이 반응할 때 질문지에 임하는 태도의 솔직성과 성실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없었다. 더불어 외상 경험을 묻는 문항에 반응할 때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므로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선행 연구자들(Herman, 1992)의 연구 결과, 복합 PTSD 증상은 ‘반복적으로, 사람에게 의한 외상’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복합 PTSD로 진단된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경험한 외상사건이 ‘일회성의, 비대인적 외상’인 경우도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chiraldi(2000)는 외상 유형에 따른 심리적 후유증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추후의 연구과정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상의 발생 시기를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복합 외상을 처음 경험한 연령과 상관없이 복합 PTSD의 진단을 내린 연구(정지선, 2008)도 있으나 복합외상을 처음 경험한 시점이 중요하다고 하는 연구도 있다. 추후의 연구 과정에서는 외상의 시기를 고려한 연구를 통해 외상이 발생한 시기가 외상관련 정서, 복합 PTSD 및 용서와 관련이 있을 것인지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수 (2002). 용서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상

처경험자의 자존감, 불안, 분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0(1), 165-191.

김기범, 김양하 (2004). 자의식적 정서로서 부끄러움의 경험 준거와 심리적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29-45.

김소희 (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라영선, 현명호, 차성이, 윤선영 (2010). 아동기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및 용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21-34.

민경환 (1993). 소외의 심리학적 개념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1), 71-88.

박종효 (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01-322.

박철옥 (2007). 새터민의 대인관계적 외상경험, 용서, 경험회피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효정 (2007). 글쓰기를 통한 용서치료가 대인관련 외상경험자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운산 (2009). 수치심의 치료와 용서. 신학사상, 147, 253-278.

안현의 (2007). 복합외상(Complex trauma)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26(1), 105-119.

안현의, 박철옥, 주혜선 (2012). 외상관련 정서의 확장: 수치심, 죄책감, 분노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839-854.

양계령 (2008). 심리적 학대와 자아탄력성이 복합 PTSD에 미치는 효과: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 위 논문.
- 오영희 (2006). 한국인의 상처와 용서에 대한 조사. *교육심리연구*, 20(2), 467-486.
- 오영희 (2008). 한국인 용서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1045-1063.
- 윤호균 (2005). 심리 상담의 치료적 기제.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13.
- 이아름 (2009). 정서조절이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 용서와 복수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수 (2011). 청소년의 용서경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영, 유제민, 현명호 (2008). 소방대원의 정서지능, 적극적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가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2), 373-389.
- 장미수 (2011). 한국판 외상정서평가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전철은, 현명호 (2003). 심리적 피로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763-776.
- 정성진 (2011). 용서과정척도 개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지선 (2008). 청소년 학교폭력의 복합 외상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20(1), 145-160.
- 정형수 (2003). 수치심의 지각정도에 따른 대처방식과 우울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혜선, 안현의 (2008). 외상 후 위기 체크리스트: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235-257.
- Allen, J. G. (2005). Relationships among compulsive hoarding, trauma, and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2), 269-276.
- Andrews, B., Brewin, C. R., Rose, S. & Kirk, M. (2000). Predicting PTSD symptoms in victims of violent crime: The role of shame, anger, and childhood ab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1), 69-73.
- Arriaga, X. B. & Rusbult, C. E. (1998). Standing in my partner's shoes: Partner perspective taking and reactions to accommodative Dilemm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927-948.
- Breslau, N., Davis, Glenn C., Andreski, P. (1995). Risk factors for PTSD-related traumatic events: A prospective analysi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4), 529-535.
- Briere, J. (2002). Treating adult survivors of severe childhood abuse and neglect: Further development of an integrative model. In J. E. B. Myers, J. Briere, C. T. Hendriz, C. Jenny, & T. Reid (Eds.), *The APSAC handbook on child maltreatment (2nd ed.)*. Newbury Park, CA: SAGE.
- Cole, P. M., Michel, M. K. & Teti, L. O.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73-102.
- Coyle, D. L. & Enright, R. D. (1997). Forgiveness intervention with post-abortion 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 1042-1046.
- Deffenbacher, J. L., McNamara, K., Stark, R. S.,

- & Sabadell, P. M. (1990). A combination of cognitive, relaxation, and behavioral coping skills in the reduction of general anger.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9(2), 167-172.
- Denton, R. T. & Martin, M. W. (1998). Defining forgiveness: An empirical exploration of process and rol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281-292.
- DePrince, A. P., Chu, A. T. & Pineda, A. S. (2011). Links between specific posttrauma appraisals and three forms of trauma-related distres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3(4), 430-441.
- DePrince, A. P., Zurbriggen, E. L., Chu, A. T. & Smart, L. (2010). Development of the Trauma Appraisal Questionnair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9(3), 275-299.
- Dunkley, D. M., Zuroff, D. C. & Blankstein, K. R. (2006). Specific perfectionism components versus self-criticism in predicting mal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665 - 676.
- Dyer K. F. W., Dorahy. M. J., Hamilton, G., Corry, M., Shannon, M., MacSherry, A., McRobert, G., Elder, R. & McElhill, B. (2009). Anger, aggression, and self-harm in PTSD and complex PTSD.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5(10), 1099-1114.
- Enright, R. D. &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1). The moral development of forgiveness. In W. Kurtines & J.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Vol. 1, pp.123-15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reedman, S. R. & Enright, R. D. (1996). Forgiveness as an intervention goal with incest survivor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983-992.
- Garnefski, N. (2000). Age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Antisocial Behavior, and Negative Perceptions of Family, School, and Peer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9(9), 1175-1181.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 Gaylin, W. (1984). *The rage withi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Gratz, K. L. & Ro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3), 377-391.
- Hodgson, L. K. & Wertheim, E. H. (2007). Does good emotion management aid forgiving? Multiple dimensions of empathy, emotion management and forgiveness of self and other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24, 931-949.

- John, P. (1985). *Is human forgiveness possible? A pastoral care perspective*. Nashville: Abingdon Press.
- Langman, L. & Chung, M. C.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Spirituality, Traumatic Guilt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mong People with Addiction. *Psychiatric Quarterly*, 84(1), 11-26.
- Luskin, F. A. (2001). *Forgiveness for good: A proven prescription for health and happiness*. San Francisco: Harper.
- Maltby, J., Macaskill, A. & Day, L. (2001). Failure to forgive self and other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personality, social desirability and general heal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881-885.
- McCullough, M. E., Bellah, C. G., Kilpatrick, S. D. & Johnson, J. L. (2001). Vengefulness: Relationships With Forgiveness, Rumination, Well-Being,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5), 601-610.
- McCullough, M. E., Bono, G. & Root, L. M. (2007). Rumination, emotion, and Forgiveness: Three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490-505.
- McCullough, M. E., Pargament, K. I. & Thoresen, C. E. (2000). The psychology of forgiveness: History, conceptual issue, and overview. In M. E. McCullough, K. I. Pargament, & C. E. Thoresen (Eds.),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1-14). New York: Guilford.
- Orcutt, H. K., Pickett, S. M. & Pope, E. B. (2005). Experiential avoidance and forgiveness as mediators in the relation between traumatic interpersonal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7), 1003-1029.
- Ouitmette, P., Saxe, G. & van der Kolk, B. A. (1996). *The Complex PTSD Interview In Stamm, H. (Ed), Measurement of Street, Trauma, and Adaptation*. Sidran Press.
- Paleari, F. G., Regalia, C. & Fincham, F. D. (2005). Martial quality, empathy, and rumination: A longitudinal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242-249.
- Pronk, T. M., Karremans, J. C., Overbeek, G., Vermulst, A. A. & Wigboldus, D. H. J. (2010). What it takes to forgive: When and why executive functioning facilitates forg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1), 119-131.
- Pynoos, R. S., Steinberg, A. M., Ornitz, E. M. & Goenjinan. A. K. (1997). Issues in the Developmental Neurobiology of Traumatic Stres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821, 176-193.
- Rhoades, G. K., McIntosh, D. N., Wadsworth, M. E., Ahlkvist, J. A., Burwell, R. A., Gudmundsen, G. R., Raviva, T. & Rea, T. G. (2007). Forgiving the September 11th terrorists: Associations with coping, psychological distress, and religiosity. *Anxiety, Stress & Coping: An International Journal*, 20, 109-128.
- Rizkalla, L., Wertheim, E. H. & Hodgson, L. K. (2008). The roles of emotion management and perspective taking in individual's conflict management styles and disposition to forgive.

-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 1594-1601.
- Sansone, R. A., Kelley, A. R. & Forbis, J. S.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and Borderline Personality Symptomatology.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1-7. DOI 10.1007/s10943-013-9704-3.
- Schiraldi, G. (2000).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ourcebook: A Guide To Healing, Recovery, And Growth*. Los Angeles: Lowell House.
- Seligman, M. E. P., Abramson, L. Y., Semmel, A. & yon Baeyer, C. (1979). Depressive attributional sty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242-247.
- Tangney, J. P., Dalglish, T. & Power, M. J. (1999).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 New York, NY, US
- Tangney, J. P., Wagner, P. E. & Gramzow, R. (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469-478.
- Thompson, L. Y., Snyder, C. R., Hoffman, L., Micheal, S. T., Rasmussen, H. N., Billings, L. S., Heinze, L., Neufeld, J. E., Shorey, H. S., Roberts, J. C. & Roberts, D. E. (2005). Disposition forgiveness of self, other, and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73, 313-359.
- Wong, P. T. P. (2011). Positive Psychology 2.0: Towards a Balanced Interactive Model of the Good Life. *Canadian Psychology*, 52, 69-81.
- Worthington, E. L. & Wade, N. G. (1999). The Psychology of Unforgiveness and Forgiveness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4), 385-418.

1차원고접수 : 2013. 03. 29.

수정원고접수 : 2013. 05. 28.

최종게재결정 : 2013. 05. 29.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 Related Emotions and Forgiveness of Participants experiencing Complex Trauma - The Moderating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

Kim, In Kyoung

Hong, Hye Young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on the between Trauma related emotions and situation-specific forgiveness. The participants were 135 adults(to meet the diagnostic criteria for Complex PTSD) aged over 18. Collected data from the adults were analyzed with various types of methods including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trauma related emotions had a negative relation with situation-specific forgiveness. At the same time, adaptive emotion regulation lacked any relation with situation-specific forgiveness and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except self-blame) had a negative relation with situation-specific forgiveness. The result from multiple analyses suggested that adaptive emotion regulation refocuses on planning and acceptance moderated between trauma related emotions and situation-specific forgiveness. In addition, acceptance moderated between betrayal (fear, alienation) and situation-specific forgiveness, adaptive emotion regulation, refocuses on planning, acceptance and self-blame moderated between anger and situation-specific forgiveness. Also, adaptive emotion regulation creates positive refocusing and positive reappraisal moderated between shame and situation-specific forgiveness. This study was demonstrated as a role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s a moderator against trauma related emotions leading forgiveness, which implies that the intervention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hould be changes according to trauma related emotions level in counseling sessions. Limitations of the result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asdiscussed.

Key words : complex PTSD, trauma related emotio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ituation-specific forgiveness